



발행인 : 명제태 편집인 : 명영철 편집국장 : 명영식 발행처: 413-883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408번길 49 명씨대종회 / 명영식 전화: 031-527-3126 팩스: 031-527-3128

더 밝고 희망찬 대종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명씨대종회 회장 명 제 태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지난 4월 27일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해 주신 명동성 전임 회장님 내외분과 전국 각지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촉명씨대종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21세손 명제태입니다. 대종회장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럽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큽니다. 저를 신뢰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대종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문제는 우리 대종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종회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세대 교체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젊은 2세들이 종친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종친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종친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여 종친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종친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종회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여 운영 정보와 소식을 종친들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종친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종회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대종보(소식지)를 다시 발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 공지사항, 종친 관련 정보와 지방 종친회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종친들의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원고 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명씨대종회 사당, 대하파안기념관



넷째, 족보 발행을 준비하면서 전자족보를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족보에 쉽게 접근하고, 족보 등록과 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족보 시스템은 종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소통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IT 인력과 협력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종회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금 모금 행사와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종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대종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종친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일들은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맡은 임기 내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차기 임원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우리 대종회에는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회 및 시제 행사 시, 파주 사당(경모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종친회가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처럼 대종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대종회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종회의 미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종회 운영에 반영하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대종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종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밝고 희망찬 대종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대종회장 명제태

2024년, 제46차 명씨대종회 정기총회

1 2024년, 공로패 수여 및 제25대 명씨대종회회장 선출

- 일시 : 2024. 04. 27 (토) 11:00
- 장소 : 대하파안기념관
- 내용 : 제25대 명제태 대종회장 선출 및 공로패 수여식



대종회, 제46차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대종회는 2024년 4월 27일 파주 경모사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명호근 회장의 주관 하에 명동성 명예회장, 창원종친회장 및 종친, 청양종친회장 및 종친 등 각 지방종친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보고와 2024년도 예산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공로패는 대종회고문 명근식(서울), 대종회부회장 명창환(금산), 고홍지방종친회 사무국장 명광연(고흥), 대종회 상임이사 명성순(수원)에게 수여하였다.

명호근 회장은 “지난 2년간 대종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오늘 새로 선출된 유능한 신임 회장을 도와 종친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종친회가 더욱 단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대종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종친 간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종회, 제46차 정기총회 제25대 회장 선출

대종회는 지난 2024년 4월 27일 파주 경모사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4대 명호근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25대 회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는 각 지방종친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5대 회장으로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21세손 명제태 종친(72세)이 참선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명제태 신임 회장에게 대종회기 이양과 함께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명제태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종친회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임기 동안 종친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며, “종친들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친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하고, 족보 발행과 함께 전자족보(인터넷족보) 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대종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종친 간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2 2024년 봄, 중경참배

시조 명옥진 황제 제658주기 참배

대종회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명호근 회장과 대종회 임원 및 종친회원으로 구성된 참배단 50여 명이 참여하여 시조 명옥진 황제 제658주기 참배를 다녀왔다. 참배단은 중경에 위치한 정부청사와 궁궐터를 찾아 명옥진 황제의 정취를 느끼고, 예릉을 찾아 명씨의 시조인 명옥진 황제께 제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단은 이어서 수이저우(隨州) 수현(隨具)에 있는 황제의 탄생지를 방문하여 황제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이곳에서 명씨의 역사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며, 명옥진 황제가 태어난 곳의 유적과 기념비를 둘러보았다.

마지막 일정으로 양쯔강으로 이동하여 중국 명씨들이 건립한 중화명씨 사당을 관람했다. 사당에서 명씨 가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며, 중국 내 명씨들의 활약과 업적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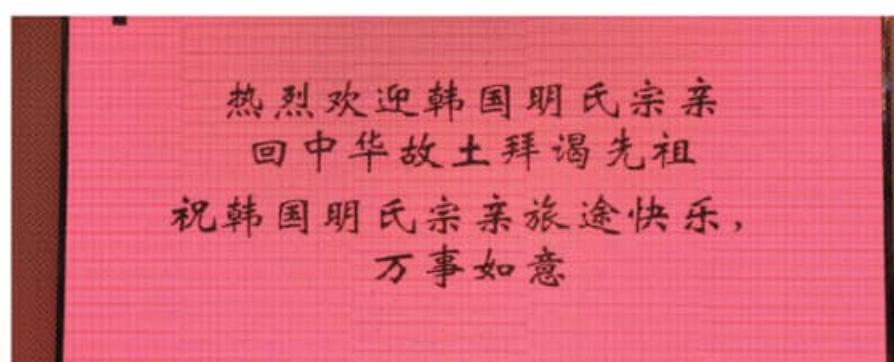
이번 참배는 대종회의 단합과 함께 명씨 가문의 뿌리를 되짚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참배를 통해 명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생지 (수현)방문



탄생지 (수현)를 방문 후 양金币으로 이동하여 중화명씨 사당을 둘러본 후 중화 명씨들이 준비한 만찬이 있었다.



중국 양金币. 중화 명씨들이 만찬과 함께 일월여천(하늘에 해와 달은 아름답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 족자를 대종회에 기증했다.



중국 대하국 황제 명옥진의 후손

명씨대종회 명예회장,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 **명 노 승**

한국 명씨는 중국 원나라 말기 중경을 중심으로 대하국을 세웠던 명옥진을 시조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명옥진은 1329년에 태어나서 1361년 통촉왕이 되었고 1363년 대하국을 건국하고 황제가 되었다가 1366년에 사망하면서 당시 10세인 명승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하여 명승이 2대 황제가 되어 대하를 통치하다가 1371년 당시 주원장이 세웠던 명나라에게 멸망하고 1372년(고려 공민왕 21년)에 고려로 이거하였다.

한국 명씨는 이때부터 한국에 살게 되어 현재 남한에 약 27,000명이 살고 있다. 한국으로 이거한 후 약 600년간은 한국 명씨와 중국은 단절의 시간이었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왕래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은 늘 불편한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왕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교 후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자연히 명씨의 역사가 밝혀지게 되었다. 명씨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1982년에 중국 중경에서 명옥진의 예릉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명씨들은 이 사실을 국교 수교 후 뒤늦게 알고 1995년부터 중경을 방문하여 예릉에 참배하고, 각종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고 책자도 발간하여 왔다.

한국 명씨족보는 처음 발간한 신사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9회 결쳐 발간 되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1701년의 신사보, 1759년의 기묘보, 1776년의 명신보, 1812년의 임신보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명옥진이 어떻게 대하국을 건국하였고, 명승이 어떻게 고려로 이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중국 문헌과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명옥진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감(甘)씨를 비롯한 9개 성씨와 사천성의 일부 명씨들이 명옥진의 후손이라 주장하여 이번에 한국 족보를 중심으로 그 진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명씨 족보에는 명승은 1357년에 탄생하여 1416년 60세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형제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리고 1372년 공민왕 21년 명승은 모후 팽씨와 진우량의 아들 진리 등 27명이 같이 고려로 왔고 군부인 파평 윤씨와 결혼하여 의, 현, 준, 신의 4형제의 아들을 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명승이 팽황후와 같이 고려로 온 것에 대하여는 명사, 명씨실록, 대홍산지, 수주지 등의 기록이 일치한다.

한국 명씨족보에는 명옥진의 황후는 팽씨였고, 1321년 탄생하셔서 1404년 84세로 사망하여 숙릉에 장사지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족보를 만들었던 당시는 일부다처제 시대로 후궁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또한 명옥진의 예릉에서 발굴된 현궁지비에도 팽후와 아들 명승에 대한 기재만 있고 후궁이나 명승이 외의 아들이 있다는 기록이 없다. 만약 그 때 후손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석에 새겼을 것이다.

중국에서 명옥진을 오래 연구해온 학자에 의하면 1371년 명나라의 주원장 앞에 명승과 팽후 그리고 각료가 같이 가서 항복하였는데 그 때 일부 가족을 숨기고 항복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특히 명나라와 대하는 같이 원나라에 대항하여 서로 사신을 파견하며 지냈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어 일가족을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옥진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들의 족보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서로 틀리고 연대도 틀린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명씨대종회는 그간 확실한 역사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명옥진의 중국 후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지를 유지해 왔다.

최근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한국 명씨들이 명옥진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으니 서로 교류하여 함께 조상을 모시는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선후가 바뀐 생각이라 생각된다. 먼저 같은 후손인지를 확실히 규명하고 교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조상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 족보에 기재된 후직, 오태백, 중옹, 백리해, 맹명, 명승소, 명산빈, 명승엄, 명호로 이어진 명옥진 이전의 선대를 같이 모시고 있는 호북성 양신과 중경의 명씨들과 교류하면 된다.

실제로 중경의 명씨들은 한국에도 방문하였고 한국 명씨들이 중경이나 양신에 가면 매우 우호적으로 환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지 같은 후손인지 불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오히려 중국 대부분의 명씨 들로 부터 우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옥진 황제의 후손은 한국 명씨 뿐 아니라 생각되며 한국의 명씨들은 황제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늘 행실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도 연재 됩니다.

명대산악회 대종회기와 태극기 기증

대종회기와 태극기가 오래되어 퇴색되고 낡아서 명대산악회 (회장 명영식)에서 제작하여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항렬자수정

꼭 알고 써야 할 명씨 돌림자!

명씨대종회는 수년 전부터 항렬자(돌림자)를 검토하여 이를 수정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명씨대종회가 최종 확정한 명씨 자손들의 항렬자를 보여줍니다.

이는 명씨시조사에 나와 있는 항렬자를 수정한 최종 확정본으로, 앞으로 명씨 자손들의 작명 시 반드시 첨부된 표의 항렬자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명씨시조사의 돌림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항렬자 수정 확정은 명씨 가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후손이 동일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항렬자는 세대와 가문을 구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명씨 자손들이 작명할 때는 꼭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씨 가문의 전통과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문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行列字修正

金	土	火	木	水
世	世	世	世	世
○ 鑄 25 在 24 魯 23 ○ 植 22 ○ 淬 21	○ 鐘 30 基 29 熙 28 ○ 柱 27 ○ 相 32 ○ 淚 31	○ 鉉 35 圭 34 煥 33 ○ 東 37 ○ 洪 36	○ 鈸 40 垣 39 煙 38 ○ 桂 42 ○ 洇 41	○ 鈺 45 時 44 變 43 ○ 桃 42 ○ 沔 41
○ 鎔 50 培 49 烨 48 ○ 模 47 ○ 汪 46	○ 鑄 55 墓 54 灋 53 ○ 杜 52 ○ 雨 51	○ 鐸 60 均 59 照 58 ○ 枷 57 ○ 汶 56	○ 鉉 65 起 64 煙 63 ○ 秀 62 ○ 演 61	○ 銀 70 埃 69 烹 68 ○ 根 67 ○ 泰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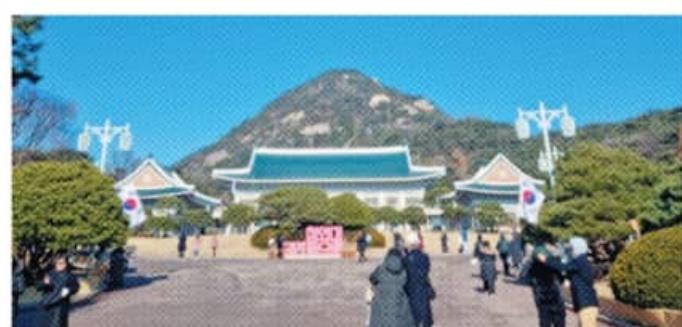
2024년 명씨대종회 임원명단

■ 명씨대종회 임원명단 ■

지역	세손	성명	전화번호(010)	기타
부산광역시	31	명재호	070-1230	한남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인	041-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5	명재민	051-0230	대신운송 회장
서울	31	명재석	060-1230	대안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2	명재현	042-0230	금강운송 회장
서울	32	명재호	010-1230	고종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고종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노석	042-0230	서진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서진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서진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4	명재관	05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42-0230	명재운송 회장
서울	35	명재석	040-1230	명재운송 회장
부산광역시	33	명재현	051-02	

명대산악회(명씨대종회산악회)

명대산악회(회장 명영식)는 5월산행으로 대종회 총회후 사당과 재실점검겸근처 울곡수목원을 산책했다.



명대산악회는 17대 회장이신 명노승 명예회장님께서 조직 후 1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종회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헌신적인 봉사로 대종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 산행을 하며 끈끈한 친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친님들의 많은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 태흥산업기전(주) ■ 태흥기전: 명영준(25세손)

수 •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전문 제작업체

30여년간 전통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heungsanup.co.kr

<주요생산품목>

수, 배전반 Motor제어반 중앙감시제어반
계장제어반 분전반 충전기 집합 계량기함



고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저압배전반



분전반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109 (기지리 973번지) Tel. 031)536-9339 Fax. 031)536-9336 E-mail. joon9340@hanmail.net

www.sk-motor.co.kr

연구하는 기업 (주)신강전기

1991년 설립된 (주)신강전기는 산업용 모터생산 전문 메이커로 창업되었으며 고객 맞춤형 및 특수모터 제조를 바탕으로 안정된 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 강 전 기

■ (주)신강전기: 명재문(24세손)

생산품목



철도차량용 냉난방 에어컨용
방직기용, 공조기용, 팬 브로워용
공작기계용 펌프용 감속기용
엘리베이터용 호이스트용
주차설비용 기타 산업기계용

KS표준품, 수출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48번길, 27 (인천서부산업단지 14블럭 4롯트) Tel. 032)561-8000 Fax. 032)561-8309 E-mail. sk8308@chol.com

2024년, 명씨대종보 재창간 기념 현시



- 고흥군 나로도 덕흥마을 출생
- 고흥문중 동무
- 현)전라남도 문민협회 회원
- 현)한국문인협회 회원
- 현)사단법인 한국문민법의 고용지부회장

명 광 연

나로도의 明氏마을

횡각사 땅을 주원장에게 나라를 내주고
망국의 눈물로 길을 찾아 남으로 남으로
고려국 황해도 연안에 둑지를 트신
2세조처럼

도요토미 임진왜란에 고향을 내주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남으로 남으로
물의 끝인 고흥반도에 둑지를 트신
입향조께서는

수 천리 타관 땅을 죽지법으로 오셨을까
날으는 양탄자를 타고 오셨을까
그 높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가 어디라고 어떻게 오셨을까?

아! 모진 4백성상 인고의 세월 끝에
수천의 자손들이 무력무력 번성하여
경향각지에서 칭송이 자자하고
전국 방방곡곡이 明氏핏줄로 이어지네.

이제 당신들이 남겨준 집성촌 나로도엔
우주선이 우렁차게 하늘을 향해 포효하고
달나라 토끼를 곧 보러가는 곳이려니
아! 님들의 선견지명 같은 그 음덕이 明氏마을이어라

언제 봄도 눈빛만으로도 혈육의 정이 잉태되고
明字 소리만 들어도 두 손 덥석 잡아 끄는 곳
한겨울 외투 같이 두툼한 나로도 明氏마을에
지금 내가 능참봉처럼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다.

명씨대종보 재창간 발행

- 발행회수 : 매 분기별, 연 4회 발행
- 발행부수 : 1,500부~2,500부
- 내용 : 명씨 역사기록 및 명씨 홍보,
종친소식 전달 및 각종 정보 공유,
황손 명씨로서의 자긍심 고취,
종친 교류 확대 및
대종회 참여의식 고취



●종친 애. 경사 및 동향●

◆대종회고문이신 명륜회 회장님께서
2024년 2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대종회와 지방 종친회(청양) 사
당 건립과 수선에 크게 기여해 오셨을 뿐 아니
라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범절을 종친들에게
주지시키려고 노력하셨었습니다

◆명의식 전 대종회장님께서 2024년 3월 23
일 별세하셨습니다. 회장님은 1998년 5월부
터 2004년 5월까지(11대부터 14대) 연임하
셨던 분으로서 2003년 서쪽 연안 명씨 족보
를 발간하셨고 초창기 옥진 황제님이 묻히신
예릉과 탄생지 관할관청과의 원만한 교류를
통해 현재에 이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대종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신 분입니다

◆명광식 서산 종친회 사무 국장 부친이신 명
제권 님께서 5월 31일 별세하셨습니다

◆명제태 대종회 회장의 장모님께서 3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명씨대종보 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대종보 편집인
명제태 회장 010-2399-6233
이메일 jayatool521@naver.com

▶ 명씨대종보 사무국장
명영식 부회장 010-6233-8204
이메일 mys3540@hanmail.net

● 명씨대종회 발전을 위해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후원계좌입니다.
국민 392801-04-176571
명씨대종회

- ▶ 본 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종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 명씨대종회는 종친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종회 발전을 위해서 많
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사투고 및 광고 안내

명씨대종보는 3개월에 1번씩, 연간 4회 발행되는 우리 명씨의 신문입니다. 기사 및 사진투고는
연중무휴 가능하오니, 종친들의 많은 투고 바랍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대종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령건강원

■ 보령건강원: 명남식(22세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건강원제품]



배즙



비트즙



양파즙



홍삼



자라



대추



장어



흑염소



붕어



가물치



전국 택배 가능

01
재료 선별 및
생산

02
검수 및 포장

03
출고 후 배송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길 8(우리은행 앞)
Tel. 031)461-1939 H.P 010-3778-0247